

W대학 치위생과 학생들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주온주[†] · 이현옥
원광보건대학 치위생과

Study of W Health Science College Dental Hygiene Students Course Consciousness

On-Ju Ju[†] and Hyun-Ok Le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Wonkwang Health Science College, Iksan-City 570-750, Korea

ABSTRACT This study executed questionnaire by own recording way using questionnaire to Dental Hygiene of W health science college and 365 students locating in Cholla-bukdo area from September 10, 2005 October 9. Distribution by class was first-year student 115 people, second-year student 125 people, third-year student 120 people, and collected data enforced crossing analysis, multiple response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using statistical analysis program SPSS(V. 11.5) and significance level(α) used in all verifications was 0.05. 1. Seoul was the most to employment hope area and($p<0.01$), there was difference that keep in mind statistically because appears salary highest about selection reason($p<0.001$). 2. knowledge degree about can go to work appeared by 52.8% for doing not know, and when go to work 60.8% was thinking aptitude and interest most importantly and there was difference that keep in mind statistically($p<0.01$). 3. when go to work 35.3% prevention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business that 27.2% hopes dental management business appear($p<0.01$). 4. I appeared accomplish result weak static correlation that analyze interrelation of degree of dictionary knowledge about can do interest degree about dental hygienist job and an employment($p<0.01$).

Key words Course Consciousness, Dental Hygiene Students.

서 론

개인의 진로를 선택하는 일은 한 개인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결정해야 하는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진로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각 개인의 생활양식은 물론 가치관과 태도까지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¹⁾. 인간이 직업을 갖는 것은 단순히 생계유지의 수단뿐만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자아실현 및 삶의 보람을 찾는 기회를 갖고자 함에 있다²⁾.

현재 치위생(학)과의 신설 및 증원으로 인해 학생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반면 치과대학의 입학정원은 축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대부분의 치과위생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치과병원은 점점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소수의 학생들은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그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준비는 소홀히 한 채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사실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하여 예비인력으로서의

대학생이 방향감각을 바르게 갖기란 심히 어렵다. 산업사회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단편적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느 것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명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화를 거듭하는 사회 속에서 어떤 정보가 어느 정도 지속적인 효과를 갖고 있어, 자신의 진로준비와 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학생들 스스로 분석해 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정보를 바르게 선별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탐색해내는 것은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있어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³⁾. 따라서 아무리 대학생들이 입학할 때, 여러 가지 정보를 충분히 고려하여 전공학과를 선택하였다 할지라도 산업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대학생 상대의 진로지도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최근 치과계에서도 전문화 및 세분화가 되고 있는데, 국민건강과 치과의료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치의학이 최근에는 치료위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치과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전문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전문인으로서의 치과위생사의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그 역할이 더욱 크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⁴⁾.

이러한 의미에서 장래의 직업인인 치위생 학생들에게 개인의 가능성을 탐색, 발견하게 하여 이를 개발시킴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올바르게 계획, 준비, 선택하도록 도와주고

[†]Corresponding author

Tel: 063-840-1260

Fax: 063-840-1269

E-mail: onjusarang@hanmail.net

선택된 직업에 잘 적응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지도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는 전문대학 학생들의 진로방향에 관한 연구로 황⁵⁾, 최⁶⁾, 김⁷⁾, 이⁸⁾ 등의 연구가 있으며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진로방향에 대하여 신⁹⁾, 남 등¹⁰⁾, 임¹¹⁾의 연구가 있다. 따라서 전문대학 교육의 효율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치위생 학생의 학습과 졸업 후 사회진출에 대한 자신감과 의식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진로의 방향과 관련된 직업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여 치위생 학생들의 진로지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05년 9월 10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북지역에 소재한 W대학의 치위생(학)과 학생 365명을 편의 추출하여 본 연구자가 설문지를 직접 배포해서 자가 기입하게 한 후 즉시 수거하였다. 그 중 응답이 미흡하여 결과분석이 곤란한 5명의 설문지를 제외한 360명(응답률 98.6%)의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학년별 분포는 1학년 115명, 2학년 125명, 3학년 120명이었다.

사용한 도구로는 신⁹⁾, 남 등¹⁰⁾, 임¹¹⁾의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으며, 설문지 내용으로는 사회학적 특성 3문항, 진로 방향에 대한 일반적 사항 3문항, 진로방향에 대한 태도 5문항,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한 태도 3문항으로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졌다.

2.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통계처리 프로그램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 11.5)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사회학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계산하였고,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진로방향에 대한 의식을 보기 위해서는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의 카이제곱검정, 복수응답분석(Multiple Response),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W보건대학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 일반화 할 수 없으며, 사용된 설문지는 표준화된 검사지가 아니고 선행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것으로 타당도 검증이 거치지 않은 문제가 있어 추후 연구에 있어서는 예비조사를 통한 타당도의 검증이 요구된다.

Table 1. Social special quality of investigation subject person

Article	N	%	
Age	18~20 years old	187	51.9
	21~23 years old	144	40.0
	More than 24 years old	29	8.1
Class	First-year student	115	31.9
	Second-year student	125	34.7
	Third-year student	120	33.3
Company experience	Yes	93	25.8
	No	267	74.2
Total	360	100.0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이 연령별로는 18~20세가 51.9%로 가장 많았으며 21~23세는 40.0%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31.9%, 2학년 34.7%, 3학년이 33.3%로 나타났으며, 직장경험여부에서는 직장경험이 있는 경우가 25.8%로 나타났다.

2. 진로방향에 대한 일반적 사항

1) 취업 희망 분야

졸업 후 취업 희망 분야에 대해서 Table 2와 같이 1학년에서는 종합병원이 33.0%, 보건소 25.2%, 개인치과 23.5% 순으로 나타났고 2학년에서는 개인치과가 32.0%, 종합병원이 29.6%, 보건소가 17.6%로 나타났으며 3학년에서는 종합병원이 33.3%, 개인치과 32.5%, 보건소가 16.7%로 나타나 학년별로 약간씩의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 취업 희망 기간

취업 희망 기간에 대해 Table 3과 같이 평생 직업으로가 69.2%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 후 자녀 출산 전까지는 13.6%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의 70.4%가 평생 직업으로 치과위생사를 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16.5%는 결혼 후 자녀 출산 전까지라고 응답하였다. 2학년에서는 74.4%가 평생 직업으로, 12.8%가 결혼 후 자녀 출산 전까지라고 응답하였고 3학년에서는 62.5%가 평생 직업으로, 17.5%는 결혼 후 그만두고 필요시 재취업을 하겠다고 응답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 취업 희망 지역

취업 희망 지역으로는 Table 4와 같이 서울이 41.1%로

Table 2. Employment hope field

Article	Individual dentist's office	General hospital	Public health center	Public official	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fund	Entering upon studies	Etc.	p
First-year student	27(23.5)	38(33.0)	29(25.2)	14(12.2)	5(4.3)	1(0.9)	1(0.9)	0.363
Second-year student	40(32.0)	37(29.6)	22(17.6)	10(8.0)	8(6.4)	3(2.4)	5(4.0)	
Third-year student	39(32.5)	40(33.3)	20(16.7)	11(9.2)	2(1.7)	3(2.5)	5(4.2)	
Total	106(29.4)	115(31.9)	71(19.7)	35(9.7)	15(4.2)	7(1.9)	11(3.1)	

Table 3. Employment hope period

Article	Before marriage	When stop and need after marriage a re-employment	Before children delivery after marriage	Whole life	p
First-year student	5(4.3)	10(8.7)	19(16.5)	81(70.4)	0.113
Second-year student	6(4.8)	10(8.0)	16(12.8)	93(74.4)	
Third-year student	10(8.3)	21(17.5)	14(11.7)	75(62.5)	
Total	21(5.8)	41(11.4)	49(13.6)	249(69.2)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도가 33.1%, 전라도 15.8%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의 50.4%가 서울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전라도는 22.6%, 경기도는 15.7%로 나타났다. 2학년에서는 경기도가 38.4%, 서울 37.6%, 전라도 13.6%로 나타났으며 3학년에서도 경기도가 44.2%, 서울이 35.8%, 전라도가 11.7%로 나타나 학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3. 진로방향에 대한 태도

1) 취업 희망 지역의 선택 이유

취업 희망 지역의 선택 이유에 대해 Table 5와 같이 보수 때문이라는 응답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공지식의 재충전 25.8%, 연고관계 18.1%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에서 보수가 4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고관계는 14.8%, 전공지식의 재충전은 11.3%로 나타났고 가정 형편상도 10.4%로 나타났다. 2학년에서도 보수가 36.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전공지식의 재충전이 35.2%로 높게 나타났고, 연

고관계는 12.8%로 나타났다. 3학년에서는 전공지식의 재충전이 30.0%, 보수가 28.3%, 연고관계가 26.7%로 나타나 학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1$).

2) 취업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지식정도

취업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지식정도를 살펴본 결과 Table 6과 같이 '모르고 있다'가 52.8%로 나타났으며 '알고 있는 편이다'는 38.6%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에서 '모르고 있다'가 47.0%, '알고 있는 편이다'는 44.3%로 나타났으며 2학년에서도 '모르고 있다'가 48.8%, '알고 있는 편이다'가 46.4%로 나타났다. 3학년에서는 '모르고 있다'가 62.5%로 나타났으며 '알고 있는 편이다'는 25.0%에 불과하였다.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 학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 < 0.01$).

3) 취업 희망 경로

취업 희망 경로에 대해서는 Table 7과 같이 학교추천이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개채용도 34.4%로 나타

Table 4. Employment hope area

Article	Seoul	Gyeonggi-do	Dae-jeon	Choong-chung do	Cholla-do	Etc.	p
First-year student	58(50.4)	18(15.7)	9(7.8)	-	26(22.6)	4(3.5)	0.002*
Second-year student	47(37.6)	48(38.4)	8(6.4)	1(0.8)	17(13.6)	4(3.2)	
Third-year student	43(35.8)	53(44.2)	6(5.0)	-	14(11.7)	4(3.3)	
Total	148(41.1)	119(33.1)	23(6.4)	1(0.3)	57(15.8)	12(3.3)	

*: $p < 0.01$

Table 5. Selection reason of employment hope area

Article	Connectedness	Salary	Family course	Recharging of major knowledge	Etc.	p
First-year student	17(14.8)	56(48.7)	12(10.4)	13(11.3)	17(14.8)	0.000**
Second-year student	16(12.8)	45(36.0)	9(7.2)	44(35.2)	11(8.8)	
Third-year student	32(26.7)	34(28.3)	4(3.3)	36(30.0)	14(11.7)	
Total	65(18.1)	135(37.5)	25(6.9)	93(25.8)	42(11.7)	

** : $p < 0.001$

Table 6. Can go to work about knowledge degree

Article	Know very well	Know	Don't know	Don't know entirely	p
First-year student	2(1.7)	51(44.3)	54(47.0)	8(7.0)	0.009*
Second-year student	-	58(46.4)	61(48.8)	6(4.8)	
Third-year student	3(2.5)	30(25.0)	75(62.5)	12(10.0)	
Total	5(1.4)	139(38.6)	190(52.8)	26(7.2)	

*: $p < 0.01$

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에서는 53.0%가 학교추천으로 30.4%가 공개 채용을 통해서 취업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2학년에서도 50.4%가 학교추천을 통해서라고 응답하였고 3학년에서는 40.8%가 학교추천, 40.0%가 공개 채용이라고 응답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4) 취업시 생각하는 중요 요인

취업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Table 8과 같이 적성 및 흥미가 6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능력은 21.9%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에서 적성 및 흥미가 52.2%, 지식 및 기술이 28.7%, 능력이 19.1%로 나타났으며, 2학년에서는 적성 및 흥미가 61.6%, 능력이 24.8%, 지식 및 기술이 13.6%로 나타났고, 3학년에서도 적성 및 흥미가 68.3%, 능력이 21.7%, 지식 및 기술이 10.0%로 나타나 학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5) 취업 장소 선택 기준

취업시 선택 기준에 대해 다중응답을 실시한 결과 Table 9와 같이 '보수가 많은 곳'이 2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장 분위기가 좋은 곳'도 20.0%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의 23.3%가 '보수가 많은 곳', 22.2%는 '사회적 인식 좋은 곳'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학년에서는 23.9%는 '보수가 많은 곳'을, 20.4%는 '직장분위기 좋은

곳'을 선택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3학년에서는 21.8%가 '직장 분위기가 좋은 곳'을 취업 장소 선택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보수가 많은 곳'은 21.3%로 나타났다.

4. 직업에 대한 태도

1) 현재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지위

현재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Table 10과 같이 67.5%가 '낮은 편이다'고 응답하였으며 26.4%는 '높은 편이다'고 응답하였다.

학년별로는 1학년의 69.6%가 2학년에서는 64.8%가 3학년에서는 68.3%가 현재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 취업시 희망 업무

취업시 희망 업무에 대해 Table 11과 같이 35.3%는 예방진료업무를 27.2%는 치과매니지먼트업무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의 29.6%는 구강보건교육업무를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었으며 27.0%는 예방진료업무를 희망하고 있었다. 2학년은 42.4%가 예방진료업무를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었고 3학년에서는 37.5%가 치과매니지먼트업무를 35.8%가 예방진료업무를 희망하고 있어 학년별로 통계적으

Table 7. Employment hope path

Article	Open employment	School recommendation	Senior help	Parents, relative help	Etc.	p
First-year student	35(30.4)	61(53.0)	11(9.6)	7(6.1)	1(0.9)	0.198
Second-year student	41(32.8)	63(50.4)	9(7.2)	8(6.4)	4(3.2)	
Third-year student	48(40.0)	49(40.8)	11(9.2)	4(3.3)	8(6.7)	
Total	124(34.4)	173(48.1)	31(8.6)	19(5.3)	13(3.6)	

Table 8. Importance leading person that think at an employment

Article	Aptitude and interest	Ability	Knowledge and a technology	Etc.	p
First-year student	60(52.2)	22(19.1)	33(28.7)	1(0.9)	0.002*
Second-year student	77(61.6)	31(24.8)	17(13.6)	4(3.2)	
Third-year student	82(68.3)	26(21.7)	12(10.0)	8(6.7)	
Total	219(60.8)	79(21.9)	62(17.2)	13(3.6)	

*: $p < 0.01$

Table 9. Employment place selection standard

Article	Do ability exhibition possibility	Salar is a lot of places	Stabilized place	Place that is near with home	Company atmosphere place	Social realization good place	Welfare institution good place	Total
First-year student	46 (13.4)	80 (23.3)	20 (5.8)	24 (7.0)	61 (17.8)	76 (22.2)	36 (10.5)	343 (32.2)
Second-year student	61 (16.2)	90 (23.9)	13 (3.5)	19 (5.1)	77 (20.4)	68 (18.1)	48 (12.8)	376 (35.2)
Third-year student	54 (15.5)	74 (21.3)	11 (3.2)	28 (8.1)	76 (21.8)	60 (17.2)	45 (12.9)	348 (32.6)
Total	161 (15.1)	244 (22.9)	44 (4.1)	71 (6.7)	214 (20.0)	204 (19.1)	129 (12.1)	1067 (100.0)

다중응답 문항임.

Table 10. Dental hygienist's station in life

Article	Is very high	Is high	Is low	Is very low	p
First-year student	3(2.6)	29(25.2)	80(69.6)	3(2.6)	0.472
Second-year student	5(4.0)	36(28.8)	81(64.8)	3(2.4)	
Third-year student	1(0.8)	30(25.0)	82(68.3)	7(5.8)	
Total	9(2.5)	95(26.4)	243(67.5)	13(3.6)	

Table 11. When go to work hope business

Article	Prevention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Oral health education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cooperation	Dentist's office management	Etc.	p
First-year student	31(27.0)	34(29.6)	22(19.1)	28(24.3)	-	0.002*
Second-year student	53(42.4)	25(20.0)	19(15.2)	25(20.0)	3(2.4)	
Third-year student	43(35.8)	22(18.3)	8(6.7)	45(37.5)	2(1.7)	
Total	127(35.3)	81(22.5)	49(13.6)	98(27.2)	5(1.4)	

*: p < 0.01

Table 12. Interest degree about dental hygienist job

Article	Is very high	Is high	Is low	Is very low	p
First-year student	7(6.1)	78(67.8)	28(24.3)	2(1.7)	0.113
Second-year student	14(11.2)	90(72.0)	20(16.0)	1(0.8)	
Third-year student	5(4.2)	78(65.0)	34(28.3)	3(2.5)	
Total	26(7.2)	246(68.3)	82(22.8)	6(1.7)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3)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한 관심정도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한 관심정도에 대해 Table 12와 같이 68.3%는 '높은 편이다'고 응답하였으며 22.8%는 '낮은 편이다'고 응답하였다.

학년별로는 2학년의 72.0%가 '높은 편이다'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3학년의 28.3%는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한 관심 정도가 '낮은 편이다'고 응답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5. 직업에 대한 관심정도와 사전지식 정도 및 사회적 지위간의 상관관계분석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한 관심정도와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사전 지식 정도 및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지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Table 13과 같이 직업 관심 정도와 사전지식 정도 간에는 $r = 0.216(p < 0.01)$ 로 약한 정적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어 직업에 대한 관심 정도가 높으면 취업에 대한 사전 지식 정도도 높음을 알 수 있었고, 직업 관심 정도와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지위 간에도 $r = 0.271(p < 0.01)$ 로 약한 정적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취업에 대한 사전지식 정도와 사회적 지위 간에 $r = 0.200(p < 0.01)$ 로 약한 정적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찰

한 개인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수많은 문제 중 진로를

Table 13. Interrelation analysis between interest degree about job and before knowledge and station in life

	Job interest degree	Before knowledge degree	Station in life
Job interest degree	1		
Before knowledge degree	.216*	1	
Station in life	.271*	.200*	1

*: p < 0.01

선택하고 결정 내리는 일은 가장 중요한 문제들 중 하나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학문과 직업세계의 영역에 있어서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가져왔으며¹²⁾ 이에 부응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학교교육에 있어서 학생 개개인이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것을 토대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 준비, 결정 내리도록 도와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예비 사회인으로 간주되고 분류되는 대학과정에 있어서 진로결정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수의 학생들이 현 사회의 구조적 및 제도적 영향으로 인하여 자신의 적성과 흥미, 장래를 충분히 고려하여 학과를 선택하기보다 합격위주의 진학을 한 결과 대학생들에게 전공과 적성간의 불일치를 초래하여 전공학과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¹³⁾. 이에 미래 전문 치과위생사인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도 학습과 졸업 후 사회진출에 대한 자신감과 의식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의식 등을 파악하여 진로선택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취업 희망 분야에 대해 1학년과 3학년에서는 종합병원을 2

학년에서는 개인치과의원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¹⁴⁾의 연구에서 치과위생사의 대부분이 치과병원에 근무하고 있었고 황 등¹⁵⁾의 연구에서도 77.6%가 개인치과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치과병원은 4.8%, 보건기관은 16%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6년에는 치과대학 입학정원의 80명을 감축할 것을 건의했으며, 치협에서도 치과대학 입학정원의 단계적 10% 감축과 동시에 치과대학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의 신·증설 불허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¹⁶⁾. 그러나 치위생(학)과는 2006년도 정원 총 270명 증원으로, 53개 대학에서 매년 3710명이 배출될 예정이다¹⁷⁾. 즉, 치과위생사가 취업하여 활동해야 하는 치과 병·의원 은 줄어들고 치과위생사는 점점 더 많이 양성된다는 것이다. 현재의 당면한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이유로 인력 양성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인력을 양성할 경우 몇 년 후에 인력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치위생(학)과의 증원이나 새로운 보조인력 양성보다는 현재의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고 조기 정년을 방지하며, 휴직중인 인력을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의 모색이 필요하다¹⁵⁾.

취업 희망 기간에 대해서는 69.2%가 평생 직업으로라고 응답하였으며, 희망 지역으로는 서울이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도는 33.1% 나타났다. 반면 W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전라북도에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15.8%에 불과하였다. 희망 지역의 선택 이유에 대해서는 보수가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시 선택 기준에 대해서도 보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¹⁸⁾은 치위생(학)과 졸업생 상당수가 다른 길을 가거나 또 그 중의 일부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근무하길 원하고 있어 앞으로는 치과위생사 인력 확보에 지속적으로 신경 써 나갈 계획이라고 피력한 바 있다.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치과위생사들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원인이 되고 있는 보수 문제의 지역 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67.5%가 '낮은 편이다'고 응답하였으며 민¹⁹⁾의 연구에서는 '낮은 편이다'가 4.5%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치과위생사직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업무범위의 확대와 치과위생사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사전 지식정도는 '모르고 있다'가 52.8%로 나타났으며, 취업 희망 경로에 대해서는 학교추천이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에게 취업에 대한 사전지식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진로 교육활동의 특강과 관련해서 취업 관련인사를 초빙하여 직종별 특성과 취업에 필요한 자세한 정보제공 및 직업선택의 방법과 직업관 형성을 도울 수 있는 특강의 제공을 우선적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²⁰⁾.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재학생과 대담형식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취업한 선배들을 다양한 분야별로 초빙하여 직종별, 기관별 특성 및 전공 관련 취업에 대해 실질적인 취업경험담과 정보를 제공 받아 자신의 취업에 대한 확신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

생들에게 자신의 취업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심어주어 자신의 직업선택에 있어 모든 면을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²¹⁾. 김²¹⁾은 여자대학생들의 83%가 전공학과와 관련된 취업상담을 희망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어, 대학에서는 취업상담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대사회는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대우를 받는 시대이다. 또한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자기 업무에 매력을 느끼지도 못할 뿐 아니라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결국에는 도태되기 쉽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취업에만 급급한 나머지 직업인으로서 자질이나 직업에 대한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업무에 뛰어들었다가 실의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 취업시 생각하는 중요 요인으로 60.8%가 적성 및 흥미라고 응답하였다. 취업을 사전에 준비하는 학생들은 적성과 능력, 흥미 등을 고려하여 자기에 적합한 희망분야를 선택한다면 전문가로서 대우를 받고 또한 보다 나은 조건에서 일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희망 업무에 대해서는 35.3%가 예방진료업무를 27.2%는 치과매니지먼트업무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구강병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와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업무인 예방진료 및 구강보건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치과위생사는 예방적 치과진료, 구강보건교육, 치과진료협조업무를 개인병원 및 종합병원, 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선진국처럼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보건교육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진료실 협조업무를 주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²²⁾.

현 시점에서 취업 및 직업선택에 대한 문제에 대해 심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인 탐색과 체계적인 진로지도에 따라 자신과 환경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에 접하게 되면 그 밖의 현실에 알맞은 진로의 선택과 비교가 가능해져 자신의 진로를 위한 준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²³⁾. 아울러 취업 진로지도 및 상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모든 학생들의 참여유도와 취업준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취업예정자들의 취업에 대한 준비와 적응에 관한 많은 어려움에 대한 큰 해결책의 하나로 현장견학 및 실습의 기회가 대부분 대학의 교과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현장실습 및 실습의 기회를 확대하고 강화하여 취업예정자들에게 취업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하며 자신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학생들은 진로에 대해 '어떻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빠르게 변화하고 전문화되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취업을 사전에 준비하는 학생들은 전문가로서 대우를 받으며 보다 나은 조건에서 일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사회학적 특성인 연령 및 직장 경험 유무에 따라서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실제 결과에서 별다른 유의성이 없어 연구결과에서 제외시켰다.

요 약

본 연구는 2005년 9월 10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북지역에 소재한 W대학의 치위생(학)과 학생 36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식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년별 분포는 1학년 115명, 2학년 125명, 3학년 120명 이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통계처리 프로그램 SPSS(V. 11.5)를 이용하여 교차분석, 복수응답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검증에 사용된 유의수준(α)은 0.05 이었다.

1. 취업 희망 지역으로 1학년의 50.4%가 서울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2학년의 38.4%, 3학년의 44.2%는 경기도를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2. 취업 희망 지역의 선택 이유에 대해 1학년과 2학년에서 48.7%, 36.0%로 보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학년에서는 전공지식의 재충전이 30.0%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1$).
3.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지식정도는 1학년 47.0%, 2학년 48.8%, 3학년의 62.5%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4. 취업시 중요 요인에 대해서는 1학년 52.2%, 2학년 61.6%, 3학년의 68.3%가 적성 및 흥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5. 취업시 희망 업무에 대해 1학년의 29.6%는 구강보건교육업무를, 2학년은 42.4%가 예방진료업무를, 3학년에서는 37.5%가 치과매니지먼트업무를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6.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한 관심도와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사전 지식의 정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상관계수가 .216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약한 정적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참고문헌

1. Tolbert, E. L.: *Counseling for carrer development*, Boston: Houghton Mifflin, 1974.
2. 황성원: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 석사학위논문, 1998.
3. 박종삼: 대학생 진로지도의 방향과 과제, 충북대학교 학생생활연구 제 8권, 1984.
 4. 김숙향: 치과위생총론, 서울, 의치학사, pp.1-10, 1992.
 5. 황미영: 전문대학생들의 직업에 관한 의식구조 조사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6. 최구덕: 전문대학 관광계열학생들의 직업의식분석 자료를 통한 진로지도 방안. 한국문화관광학회 문화관광연구 pp.287-310, 2002.
 7. 김효빈 : 일 간호전문대학 학생들의 전공학과에 대한 태도 및 진로방향에 관한 연구. 전주간호보건전문대학논문집 16(1): 99-117, 1993.
 8. 이인학: 전문대학생의 직업관과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9. 신진행: 일부 치위생 학생들의 전공학과에 대한 태도 및 진로방향. 전주보건전문대학논문집 17(1): 99-111, 1994.
 10. 남용옥, 문상은: 치위생(학)과 졸업생과 재학생의 직업에 대한 의식도 비교조사. 원광보건대학논문집 14: 209-220, 1991.
 11. 임근옥: 일부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학과 선택 만족도 및 진로방향에 대한 조사연구. 원광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2. 김판환: 진로결정상답이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불안 감소에 미치는 효과. 한국진로상담학회지 1(1) :15-37, 1996.
 13. 장대운: 전공-적성 불일치 대학생의 전공학과 적응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14:1109-1154, 1986.
 14. 정계연: 치과위생사의 이직 및 직무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월간치과연구 43(2): 52, 1998.
 15. 황윤숙의 2인: 치과위생사의 인력수급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연구보고서 pp.48-50, 2002.
 16. 치의신보: “내년 치대 입학정원 왜 감축 안되나”, 제1191호(2003. 7. 21)
 17. 치위협보: “2006년도 치위생(학)과 총 270명 증원”, 제101호(2005. 11. 25)
 18. 치의신보: “[시도지부장에게 듣는다]김중환 전북지부 회장/회원 ‘밀착행보’로 결속력 탄탄 치의 공급과잉 해결 필사 노력”, 제1410호(2005. 11. 28)
 19. 민희홍: 치위생직에 대한 치위생학생의 태도 변화에 관한 연구. 대전보건전문대학논문집 19:693-712, 1998.
 20. 전찬화의 3인: 대학에서의 진로지도 활성화 방안을 위한 일 연구(고급인력 활용의 극대화 측면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 제 27권: 31-100, 1991.
 21. 김진려: 여자대학생의 취업을 위한 진로지도의 개선방향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5.
 22. 박정란 외 5인: 치과위생사의 업무확장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연구보고서 pp.5-8, 2004.
 23. 문경숙 외 3인: 치과위생사의 근무지별 업무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1) :70, 2002.

(Received, April 4 2006; Accepted, June 23 2006)

